

우리가 머무는 이 땅에서

다니엘 3:1 - 7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짓고 사람들이 절하도록 시켰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의 친구들 또한 바벨론 지역을 맡는 책임자가 됩니다. 그들은 이방의 땅에 머무르면서도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지냈던 곳이 자신의 나라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 세상이라는 우리의 본향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무언가 계속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차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향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며 손해를 보고 삽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인내하며, 세상의 메세지에 너무 귀기울이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은 다른 가치를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의 것들과는 다릅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 인해 이웃들이 그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향으로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서야 합니다. 이 땅의 가치는 천국의 가치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결국 우상을 만들고 그의 백성들에 섬기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기 까지 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신앙이 충돌할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올해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